

화순군 ‘청춘들락(樂)’ 본격 운영

‘청년들 꿈·끼 발산’ 청년센터 개관...소통·창업·문화 프로그램 마련

화순 청년들의 소통공유 협업을 도모하는 청년플랫폼인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이 문을 열었다.

화순군에 따르면 전남도와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이 지난 6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센터 명칭 청춘들락(樂)은 청년들이 센터를 자유롭게 들락거리며 소통교류 협업하며 청춘들의 꿈과 끼를 발휘해 즐거움(樂)을 누리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겼다.

청춘들락에는 청년 공유주방 & 카페, 청년 창업 공간, 미디어공작소(스튜디오 교육실편집실), 다목적실, 소회의실, 옥상 라운지 등 청년 소통창업 문화미디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청춘들락에서는 청년 문화, 창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화순 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청춘들락 공간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난 6일 열린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 개소식에서 참가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화순을 향토리에 자리 잡은 청춘들락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건립에는 총사업비 18억5000만 원이 투입됐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화순군 청년센터가 이름처럼

지역 청년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즐겁게,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청년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일상 회복 돕는다

임시거처 임차료 등 지원조례 13일부터 시행

나주시가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7월 제정된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으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은 70% 이상 소실된 전소 주택은

500만원, 반소(30~70%)는 300만원, 부분 소실(30% 미만)은 200만원을 최고 액수로 한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화재로 사는 집에 피해를 본 주민이다.

하지만 피해주택이 빈집이거나 화재 조사 결과 방화나 경미(10% 미만)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점

부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피해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이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면 가족이나 이장, 통장이 대신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불의의 화재 사고로 임시 거처와 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에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 시민이 가입된 시민 안전보험과 더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안전제일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장흥군 취약계층 예방·관리 강화

장흥군이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취약계층 치매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치매 조기검진, 경로당, 노인 활동시설 등을 방문해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어르신들과의 대면이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에 읍면 행복복지센터와 연계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작업장으로 찾아가 인지 선별검사, 치매 예방수칙 3·3·3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정밀 검진·프로그램 등 맞춤형 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지켜라”

지원 조례 제정 협의

함평군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함평군은 지난 6일 부군수실에서 민원업무 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악성·특이 민원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최근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함평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조

례를 제정하기로 협의했다.

조례안에는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지원 ▲안전시설 확충 ▲법률상담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향후 조례제정 절차를 거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지원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동석 함평군 부군수는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은 곧 군민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전국 1위’

택배 서비스·카드 결제 등 제공...상사업비 2억 확보

장성군이 임대농기계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 올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장성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에서 장성군은 ‘임대실적’, ‘사업성과’, ‘정책 적합도’, ‘수요자·조직원 만족도’ 등 72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 임대사업소는 총 3곳으로 현재 89종의 각종 농기계를 870대 보유하고 있다.

카드 결제 시스템과 농기계 택배 서비스까지 도입하는 등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꾸준히 향상 시킨 결과 연 평균 임대 실적만 1만여 건이 넘는 정도로 이용률이 높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기 시작

한 지난해 3월부터는 농가 경영비 지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시행 중이며, 최근까지 2만900여건의 감면을 통해 5억6000여만원을 농가에 지원했다.

올해 4월에는 농업인이 안전하게 농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농기계종합교육장’을 운영해 초보 농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장성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1위로 받은 2억원의 상사업비를 노후 농기계 구입 등에 쓸 예정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자체와 지역 농업인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전국 1위’라는 값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농기계 이용률 증대와 임대사업 내실화를 통해 부자농촌 건설의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유두석(오른쪽) 장성군수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아 임대농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장성군 제공>

강진 주민이 만든 ‘영랑생가 목요음악회’ 눈길

큐레이터 9명 참여...매주 목요일 영랑생가서

강진군 주민들이 기획한 ‘영랑생가 목요음악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문화재청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더 샵 252 영랑생가’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랑생가 목요음악회’에 9명의 주민 큐레이터가 참여, 오는 12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영랑생가에서 각자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주민 큐레이터는 강진 군민을 대상으로 지난 달 두 차례의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목요음악회에 참여한 주민 큐레이터는 영랑생가(국가지원문화재 제252호)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은 물론 문화유산의 보존의식 고취와 계승·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9인 9색 하모니’를 연출

한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따라 관객을 30명으로 제한했으며, ‘김영랑 TV’를 통해 전국에 실행 중계된다.

지난 7일 ‘낙엽 위의 바이올린’ (이유미)에 이어 14일 ‘일곱 색깔의 가을동화’ (정관용), 21일 ‘당과 자비, 은총으로 꽃핀 영랑생가’ (이현숙), 28일 ‘은행일에 띄우는 가을 편지’ 등이 펼쳐진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주민 큐레이터제를 도입해 지자체가 문화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교육·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목요음악회가 시작 전부터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흥지사 010-2548-7111
나주대리점 010-3626-3848
장성대리점 010-2819-3546
전남동부권역 010-2450-1954

광양대리점 010-5355-1292
함평대리점 010-2602-6051
광주·영광 010-3925-2181
전남서부권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